

Ind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과학환경센터, 식품라벨링 요건 강화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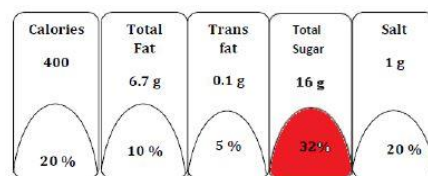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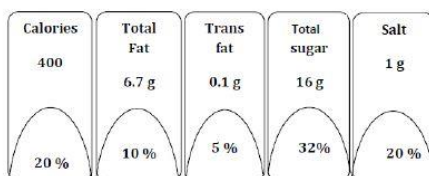
Nutrition			typical adult	
Typical values	100ml contains	250ml contains	%GDA*	
Energy	199kJ 47kcal	500kJ 120kcal	6%	2000kcal
Protein	0.5g	1.3g		
Carbohydrate	10.5g	26.3g		90g
of which sugars	10.5g	26.3g	29%	70g
Fat	trace	trace		
of which saturates	trace	trace		
Fibre	trace	trace		

인도 과학환경센터, 엄격한 식품라벨링 규정 요구

인도의 과학환경센터(Centre for Science and Environment, CSE)는 인도식품안전기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에 식품라벨링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Labelling and Display) Regulations, 2018)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함. 해당 규정은 FSSAI가 2018년 4월에 발표한 것으로 염분 라벨링과 전면 식품 정보를 의무화함. 현재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과학환경센터는 좀 더 강력하고 엄격한 라벨링 규제를 마련에 대한 제안서를 FSSAI에 제출함

국민건강 위해 엄격한 식품라벨링 규정은 필수

지난 4월 발표된 식품라벨링 규정안의 “영양성분 전면표시(Front of Pack)” 관련 조항에 따르면, 식품명, 채식/비채식주의자 여부, 1회 제공량에 대한 첨가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고지방·고염분·고과당(High Fat, Salt and Sugar, HFSS) 식품의 경우 기준량 초과시 붉은 색으로 표시해야 함



(출처: FSSAI 식품라벨링 2018 규정안)

Ind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하지만, CSE는 해당 규정안이 “식품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 정보 제공”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식품 1회 제공량” 표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설탕 및 식이섬유 세부사항 라벨링 표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함. 또한, 고지방·고염분·고과당(High Fat, Salt and Sugar, HFSS) 식품의 주요 소비자 층인 아동들의 비만율이 높은 것을 우려하며 해당 식품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하고, 유명인들의 특정 식품 광고에 대한 방송계의 규제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CSE는 또한 식품 제공량(Serving Sizes)과 라벨링에 대한 업계의 부적절한 관행을 지적하며 “인도식품안전기준청의 표준 규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Genetically-Modified Foods, GM Foods) 면제 요건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인도 식품라벨링 규제 예의 주시하여 통관거부 대비해야...

인도식품안전기준청이 4월에 발표한 식품라벨링 규정안은 현재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이번 과학환경센터의 지적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향후 식품 첨가 성분, 특히 지방, 염분, 과당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라벨링 규정도 수정될 것으로 예측됨. 인도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인도의 식품라벨링 규제안을 예의 주시하여 수출 시 통관이 거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 인도 식품라벨링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Labelling and Display) Regulations, 2018)

<http://www.fssai.gov.in/home/fss-legislation/notice-for-comments.html>

▶▶ 인도 과학환경센터, 식품라벨링 요건 강화 요청 관련 기사

<http://www.fnbnews.com/Policy-Regulations/cse-calls-for-making-labelling-and-display-regulations-more-stringent-43337>

출처

CSE calls for making labelling and display regulations more stringent, fnbnews, 2018.06.16